

나주 빛가람동, 첫 주민총회 개최

9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준수

내년도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우선순위 결정 ... 내일까지 사전투표 실시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회장 최길주)가 올해 첫 주민총회를 연다. 나주시 빛가람동은 오는 9일 내년도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우선순위 결

정을 위한 제1회 빛가람동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출범 1년여 만에 개최되는 이번 주민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온택트(ontact)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의제사업 우선순위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자치회는 앞서 내년도 의제사업 우선순위 사전투표를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직장·사업장 소재지가 빛가람동인 만15세 이상 주민 누구나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포털사이트 ‘네이버 폼’ 전자투표 링크(<http://naver.me/11xbi2ss>), QR코드(사전접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내년도 의제사업 중 먼저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은 △빛가람동주민자치회 맞이 행사 △아나바다 베품시장(플리

마켓) 운영 △빛가람동 고보조명 설치 △마한 영산강 고대역사 바로알기 △행정복지센터 로비 사랑의 무인카페 △빛가람동 마스크(캐릭터) △호수공원 국악 버스킹 운영 등 7개 사업이다.

이어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빛가람동 호수공원 테마형 꽃길조성 △빛가람동 호수공원 빛 조명물 구축 △LED 공익광고 게시판 설치 △장난감 도서관 설치·대여 △빛가람동 실버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합쳐서 총 12건이다.

최길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은 “출범 후 첫 주민총회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이번 총회에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매각 추진

곡성군, 12종 20대 지역 희망 농업인 대상... 매각 추진

곡성군은 사용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수리가 필요한 불용농기계 12종 20대를 지역 희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기종 등 자세한 광고내용은 오는 4일까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사업소에서 매각 대상 농기계를 현장 확인할 수 있다.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할 농기계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9월 7일 오후 13시부터 15시까지 현장입찰에 응해야 한다. 매각은 현장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예정가격이

상 최고가액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매입 수량은 기종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당 2대까지 낙찰 가능하다. 구입자격으로는 공고일 이전 곡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업경영체 경영주인 농업인이며 입찰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각하는 농기계는 불용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비의 노후정도를 현장 확인하고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곡성=김광희기자

영농정보 제공 ‘카드뉴스’ 제작

장성군, 시기별 작물 관리기술 등... 문자메시지 전달



카드뉴스에는 농작물 관리 요령과 시기별 주요 작물 관리기술,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등 영농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또 핵심 내용만을 요약 수록해 바쁜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제작된 카드뉴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농업인들에게 전달되며, 군 관계자는 “카드뉴스를 통해 필수 영농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영농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기자

화순군, 로컬푸드 인증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

안전성 보증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리체계 수립



화순군이 지역 농·수·축산물의 안

전성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군은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의 50%인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전류 농약 검사 등 안전·품질 관리를 지원해 지역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시작한 ‘화순군 지역 푸드플랜(먹거리종합전략)수립 연구 용역’과 연계해 로컬푸드 인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승인 받아 국비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연구 용역비로 사용하며, 추후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와 교육,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화순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도곡농협로컬푸드 직매장 2곳이다. 도곡농협로컬푸드는 2019년 7월부터

광주 롯데슈퍼 풍암점, 2019년 11월부터 봉선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롯데백화점(광주점) 내 전라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자로 도곡농협로컬푸드가 선정돼 오는 11월부터 개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점진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을 보증하는 로컬푸드 인증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급까지 안전성을 보증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과 안전성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2019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운용현황 공시

담양군, 재정적 책임성·투명성 확보

담양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운용 현황인 ‘2019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정공시는 군의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 절차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결산규모, 재정여건, 주요투자사업 추

진현황 등 9개 분야 5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시결과를 보면 지난해 담양군의 세입예산 6,017억 원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66억 원이다.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2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출규모는 4,698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92억 원이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847억 원(19.4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농림분야 728억 원(16.17%), 국토·지역개발분야 701억 원(16.08%) 순으로 세출수요가 늘면서 규모가 1년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담양군은 현재 지방채무가 0원으로 유사 자치단체(평균액 19억 원)에 비

해 재정건전성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기 위해 담양 전통시장 재건축,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등 12건의 특수 공시 대상 사업을 선정해 함께 공개했다.

2020년 담양군 지방재정공시의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행정정보공개 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태풍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구례군, 민관합동 5일시장 건축물 구조분야 집중



제9호 태풍 ‘마이삭’은 물론 재개장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건축물 구조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군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각 안전조치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재개장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번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